

## 동서대, 해외취업 2020 K-Move 스쿨 선정

4년제 대학 전국 최다인 6개 과정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 지난해 K-Move 스쿨 캠프 참가자들의 모습

지난 3월 3일, 동서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스쿨'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다인 6개 과정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6개 과정 중 5개의 과정은 우수 과정으로 승인돼 동서대의 해외취업 운영 역량이 공식적·대외적으로 높게 인정을 받았다.

올해 선정된 5개 우수 과정은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20명), ▲미국 산업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20명), ▲미국 무역물류 프린터 양성과정(20명),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15명),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과정(15명)이고, 1개 일반 과정은 올해 신규로 포함된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정(15명)이다.

K-Move 스쿨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핵

심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으로까지 연계하는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이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 어학, 교육 등 맞춤형 양성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베트남,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연수가 진행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며 구인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해외 일자리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연계 강화, 해외 진출로 도전의식 확산을 주진 과제로 한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인 최대

580만 원(단기과정) 또는 800만 원(장기과정)이 지원되며 구직자 본인 부담금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글로벌기업, 해외 진출 기업, 해외 유망직종 기업 등의 취업을 연계하고 동남아, 중동 등 신호시장 일자리 연계, 해당국 부족 직군, 기술·기술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 취득 또는 해당국 맞춤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을 연계하는 것에 지원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K-Move 스쿨을 통해 해외취업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동서대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동서대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학년부터 해외취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해외에 취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서대는

지난 2016년, 청년 해외 진출 분야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해외취업 연수과정 및 운영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또한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에서 해외취업분야의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수상했다. 동서대는 2011년부터 K-Move 스쿨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해 해외에 보내 글로벌 무대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취업 기업으로는 Forever21(미국), Korea Times(미국), H-Mart(미국), FNS(미국), 두산 중공업(베트남), 포스코(베트남), 화승(베트남), 청진 INC(베트남), 라쿠텐(일본) 등이다.

동서대는 삼반기에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미국 산업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미국 무역물류 프린터 양성과정,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총 6개 과정에서 105명을 모집한다.

대학 일자리 센터(학생 취업지원처)에서 개강하는 4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K-Move 스쿨에 참여할 동서대 학생들을 모집하며, K-Move 스쿨에 선발된 학생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8개월간) 국내외에서 직무, 어학, 필수, 소양교육을 받고 미국, 일본, 베트남으로 1년간 파견 후 현지 기업 취업 혹은 국내에 있는 관련 기업에 취업한다. 선발된 학생은 국내외 교육비 전액, 교재비, 시험 응시료, 비자 수속비 일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 동서대 장제국 총장 입학사

사랑하는 2020학번 새내기 여러분에게

지난 3월 2일, 코로나19로 취소된 입학식에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이 입학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겼다.

### ■ 장제국 총장 입학사

사랑하는 2020학번 새내기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여러분인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학식이 취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입학식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여러분도 많이 섭섭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 곧 캠퍼스에서 직접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첫 번째, 우리 대학은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은 머리로 배워야 한다. 우수한 교수진이 여러분의 지역 성장을 도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따뜻한 인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우리 대학은 '여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은 머리로 배워야 한다. 우수한 교수진이 여러분의 지역 성장을 도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따뜻한 인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4년 후, 졸업식장에서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BDAD의 실현이다. BDAD는 Before Dongseo After Dongseo의 약자이다. 사랑하는 동서대 신입생 여러분, 정말 잘 왔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 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선출

위기와 격변의 시기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구돼



▶ 행사에 참여한 장제국 동서대 총장



▶ 장제국 동서대 총장 모습

지난 1월 22일(수) 오전 10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The-K 호텔 애비뉴(별관) 한강홀에서 2020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제22대 회장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0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년이다.

이날총회는 ▲개회사 ▲신임·연임 대학총장 소개 및 인사 ▲2019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2020년도 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했다. 전국 153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6개 대학총장이 참석했으며 대학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위기와 격변의 시기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과거 11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있다 보니 재정상황이 참으로 어렵다"라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지역 혁신 플랫폼)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사업은 올해 3

개 지역을 선정해 1080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982년에 설립됐으며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학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립대학의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대학과 소통의 장으로, 사립대학 교육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해 사립대학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 협의회는 국가 고등교육 재정 GDP의 0.7%인 수준에서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근간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증대한 고등교육재정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완화하기 위한 재원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립대학 정책과 같이 사립대학 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 및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에 정치학 학사학위를, 1989년에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3년 미국 시러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학위를, 2001년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외교부 정책자문 위원, 2013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본 간사이대학교 객원교수,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총장협의회장,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수협의회 이사를 역임했다.

동서대학교 교수를 거쳐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 한일포럼 운영위원회, 2016년 이후로 주 부산 협가리 명예영사장을, 2018년 이후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2019년 이후로 (사)21세기정치학회 이사장 및 교육부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 사진출처-대학저널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선정

3개의 창업 관련 정부 사업에 선정돼



▶ 동서대학교 학생들

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등 3개의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0년 초기 창업 폐기자 사업과 연계하여 연속적이며 차별화된 창업 지원을 한다. 또한 핵심 전략인 'LVT' 기반 기술집약형 창업기지 구축과 '투 트랙(Two-Track) 투자 연계 스텝 업'을 기반으로 창업공간, 제도 혁신, 투자유치, 창업문화 활성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실험실 창업기업 육성의 6대 전략 추진을 통해 우수한 실험실 창업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동서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9억 원씩, 3년간 최대 27억 원을 지원받아 학내 실험실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 편집국장-김태향(광고홍보학과·4)  
• 정 기자-조은빛(방송영상학과·2), 한여원(국제통상학과·2)

## 동서대학교, '부산학생 꿈터'로 선정

진로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 인정받아



▶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로 프로그램

부산시 4년제 대학 가운데 동서대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우수 진로체험활동 '부산학생 꿈터'로 지정되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부산학생 꿈터'는 중고생 2000여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진로체험공간인 Industry 4.0 Lab.'을 기반으로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았다.

꿈터는 아이들의 길라잡이라는 뜻을 가진 '부산학생 꿈터'는 부산지역 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우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대국민 플랫폼인 민족 학생들에게 적절성, 유의미성, 교육의 종합성과 체험활동 공간 시설의 비유해성, 폐쇄성, 안정성이 2년간 유지되어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았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안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이공계 진로지도 특강을 비롯하여 ▲3D 메이커 공학 ▲로봇 공학 ▲드론 공학 ▲홀로그램 제작 ▲음향 인터페이스 제작 ▲수소전기자동차 제작 등 다양한 창의공학 체험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

들이 지속적으로 이공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Girls' Engineering Weeks ▲청소년 애니메이션 캠프 ▲살롱 드 아인슈타인 캠프 ▲3D 메이커 캠프 등 심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른 부류에서는 드론 조종 및 항공촬영 체험과 세계 유망 건축물 모형 만들기, 사물인터넷 제품 만들기 체험, 일일 군인 되어보기, 스포츠 재활 마사지 및 테이핑요법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그 외 프로그램 말고도 전략산업기반 실무 움직임형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위해 맞춤형 진로설계 멘토링, 특성화 전공연방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로체험을 사용한 사람들은 '우수한 진로 체험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과 부산교육청의 지속적인 홍보 덕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씬 높았다.'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지용석 동서대 WISEIT 사업단장은 "부산학생 꿈터" 인증을 통해 앞으로도 이공계 진로지도, 창의공학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질질적인 창의공학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과학, 공학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끊

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산 학생꿈터 측에서도 "부산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덕분인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라는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부산학생 꿈터 인증 마크를 사용하려면 우수 진로 체험 철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2년간 10회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사후 만족도 5점 중 평균 4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참여하여 받는 혜택으로는, 부산학생 꿈터 인증 마크 사용 권한 부여와 프로그램 홍보, 책자 제작 배포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해 준다.

동서대는 미래형 대학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치며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 학생 꿈터에 이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취업 경험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 중이다.

조은빛 기자  
dmsalc11@gmail.com

## 방송영상학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최우수

선정된 미디어 분야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받아



▶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진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가 작년 광고홍보학과에 이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최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

이번 방송영상학과는 최우수학과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신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중 선정된 미디어 분야 학과 중에서도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례집에도 탑재됐다. 대교협에서 선정하여 28일에 발표한 대학교와 학과는 경남대·나는 신소재 공학과, 국민대·언론정보학부 미디어 전공, 우석대·식품생명공학과 등 25개 대학 30개 학과가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다. 주로 신소재(금속·세라믹), 미디어, 식품 등 3개 분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62개 대학의 48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해 도출된 결과이다.

한편 동서대는 지난 4년에 걸친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전체 18개 분야를 합산하면 '최우수'를 가장 많이 획득했다. 현재 9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동서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산업체의 기대

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시행하며, 대학이 교육과정에 산업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교협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업체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산업 트렌드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서대학교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번 최우수상을 이어, 무궁한 발전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기업들이 대학 교육과정의 산업체 수요 반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교협은 교육부 지원과 경제5 단체(한국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협조로 2008년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를 도입했다.

조은빛 기자  
dmsalc11@gmail.com

## 동서대학교 학생들, '코로나19' 극복에 힘 부여해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극복에 앞장서



▶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식품영양학과 동아리 '푸디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대학교들이 대학교 개강을 연장하고, 본래의 계획에 차질에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또한 대학교 안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나, 기숙사 행정에도 비상사태가 이어지며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학교 측의 명확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중이다.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개강을 연기하는 대신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도록 조정했다.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도 사람들의 기부나 무상 제공 등 지원 대책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대학교의 기부 활동과 펼쳐지고 있다.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 극복에 힘 쓰고 있는 중이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손 소독제를 다양으로 만들어 홀몸 어르신과 중국인 유학생에 전달했다. 식품

각종 과자, 라면, 음료 등을 담은 80상자를 생필품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였다. 이 밖에도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 학년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 응원 기부 팔찌를 진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대학교 중국인 출입생 양평동문도 4월 6일 모교에 마스크 200장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양평 동문은 "어려운 시기에 모교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지금 힘든 상황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응원의 활력을 불어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힘을 불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기부를 주진하여 세상에 대한 따뜻한 힘을 부여하는 우리 대학의 인재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조은빛 기자  
dmsalc11@gmail.com

## 동서대, 메이커 스페이스 기관으로 선정

동서대를 포함하여 총 64곳 최종적으로 정해져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동서대학교가 종소 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 6천만 원씩 총 8억 원을 지원받는다.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에는 49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동서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64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内外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 일꾼들을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서부산권 메이커 문화 확산과 지역 창업 분위기 활성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취지로 했다.

특히 동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가공·도색 분야를 중심으로 4대 핵심 전략인 ▲가공·도색 특화 공정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기반 공유·협업 공간 활성화 ▲첨단문화마을 관광상품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 창업 지원 체계 구축 활성화 통로를 통해 대한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사상·시내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메이커 기반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유태수 메이커 스페이스 센터장은 "지역의 혁신성장과 제조창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해, 많은 예비창업자와 일반인,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진우 산학협력단장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内外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 일꾼들을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서부산권 메이커 문화 확산과 지역 창업 분위기 활성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취지로 했다.

한편 교수님의 축사와 함께 김태현 국장은 "안녕"의 뜻대로 아무 말 없이 편안할 수 있는 신문사를 만들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신문을 쓰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도 동서대학교는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7개 일반 맵과 시가지 위원회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지역 메이커 산업을 이끌었다. 하지만 고급 장비와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장기 교육 프로그램 마련으로 메이커 활동이 실습 과정과 별개로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최초로 전문 맵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우수 메이커가 성공 창업 기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활동으로 영역이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인다.

조은빛 기자  
dmsalc11@gmail.com

동서대 신문사 '이·취임식'  
새로운 신문사로 전환



▶ 동서대학교 신문사 이·취임식 축하 장면

1월 28일 동서대학교 신문사(산학협력관 6층)에서 '방송영상학과 이주원' 전 국장이 이임하고 '광고홍보학과 김태현' 국장이 취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신문사 학생들과 담당 교수님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이임식과 취임식은 임기를 마친 전 국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과 현 국장의 취임 축하를 전달했다.

신문사 학생과 담당 교수님은 이주원 전 국장의 이임에 아쉬움을 표했고, 김태현 교수님의 마음을 담은 송별이 이어졌다. 또한 담당 교수님은 간사파와 풋다발을 함께 전달하고, 신문사를 잘 소화 해낸 전 국장에 대한 مد담을 나누며 이임식을 마쳤다. 이에 이주원 전 국장은 신문사에 대한 이별과 아쉬움을 전하며 앞으로 동서대학교 신문사의 발전을 기원했다.

김태현 교수님의 축사와 함께 김태현 국장은 "안녕"의 뜻대로 아무 말 없이 편안할 수 있는 신문사를 만들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신문을 쓰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편집국장의 역할은 모두의 노력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겸손을 표하며 신문사의 운영체계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을 함께 말하면서 신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신문사에 험씨준 전 국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현 국장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포부를 알 수 있엇던 이·취임식은 앞으로의 신문사의 질 향상에 큰 기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빛 기자  
dmsalc11@gmail.com

# 취업 강자 동서대학교 성장세를 달다

2019 청년드림 대학 선정 잇따라 2020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



▶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 수상을 받은 모습

지난 2019년 12월 17일 서울을 기른 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한국고용정보보원이 공동 주관한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이 개최됐다. 동서대학교는 시상식에서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수상했다.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은 고용노동부, 동아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의 3개 기관이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1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취업 지원 ▲창업 지원 ▲해외 진출 4개 분야에 108개 사례가 접수됐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로 거쳐 12개의 대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2019 베스트 프랙티스 상은 3개 기관의 이름으로 4개의 분야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상을 수상했다. ▲국민대학교 ▲인천대학교 ▲청각문화사업대학교 ▲아주대학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 받았다. ▲원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중앙대학교는 동아일보 사장상을 수상 받았다. ▲대전대학교 ▲세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서대학교는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수상 받았으며 우리 동서대학교가

위의 대학들과 나란히 올라섰다.

동서대학교는 해외 취업 분야 사례로 발굴됐다. 체계적인 해외 취업 로드맵을 통한 성공적인 해외취업 사례와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분야로 선정된 대학은 동서대와 군산대 단 2개 대학만이 선정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진로지도 분야'에는 진로 탐색과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예비 직무 전문가 양성과정 '주니어 코리'를 운영한 국민대학교와 재학생 전체 대상 교과목 '세명 진로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세명대학교 등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선정됐다. '취업 지원 분야'에는 학생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경력 관리 시스템과 단계별 케어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 동신대와 직업 심리 검사 및 진로 정보 분석 등을 활용한 실습 기업 연계(파칭), 장기 현장 실습 및 일 학습 병행을 실시한 순천향대 등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창업 지원 분야'에는 창업 유형을 기술 혁신형, 융복합형, 신산업 창출형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창업 역량에 맞춰 단계별로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자금이 창업을 지원한 아주대학교 사례 등이 발굴됐다. 동서대는 앞으로도 해외취업사업의 확대



▶ 2020 창업체험 프로젝트 수료식 단체사진

를 위해 저학년부터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외 취업 교과목 개설, 해외취업 동문 토크쇼를 통한 동기부여, 해외취업동아리 운영을 통한 실전 준비 등 학생들이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서대학교는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선정에 잇따라 2020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 우리 대학 창업 지원단은 지난 4년간 수행해온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동반성장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창업 요람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것이다.

동서대학교는 핵심 전략인 '초기 창업 지원 플랫폼'과 '동서 연결 투자 펀드'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거점 창업문화 활성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초기 창업기업 육성의 7대 전략 추진을 통해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해 주는 비용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서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씩 3년간 최대 7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내 초기 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에 운영한다. 동남권에서는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동서대, 부산대, 부경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동서대학교는 창업선도대학 및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아이템 사업화 및 후속 지원 등을 수행해왔다.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선정으로 동서대학교의 우수한 산학협력 지원과 기업 지원 인프라 연계 활용을 통해 초기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동반성장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창업 요람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것이다.

동서대학교는 핵심 전략인 '초기 창업 지원 플랫폼'과 '동서 연결 투자 펀드'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거점 창업문화 활성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초기 창업기업 육성의 7대 전략 추진을 통해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 ■ 학과별 Q&A 인터뷰

### 자랑스러운 예비 간호인, 간호학과 인터뷰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17학번 김현지입니다.

시는 일을 관찰하며 이론과 임상의 차 이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Q. 보통 실습 장소는 어떤 곳으로 배치받나요?

A. 과목마다 학생마다 다른 실습지를 배정받습니다! 실습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마다 배정받는 병원도 각기 다릅니다. 보통 부산 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복음 병원, 부산성모병원 등 대학병원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 지부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실습합니다.

Q. 간호학과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나요?

A. 동서대학교 간호학과에는 Basic Life Support(BLS) 센터가 있습니다. BLS란 기본 소생술을 뜻하는데 심폐정지를 일으킨 사람에게 시행하는 응급조치입니다. 출입하기 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BLS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프로그램 중 DAI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간호학과 교수님의 인솔 하에 태국의 나래 수안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를 견학합니다.

Q. 앞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란 간호 학도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간호사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행사이입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가운데를 작용한 채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자신이 어떤 간호사가 될지 생각하며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임합니다.

Q. 졸업한 후 취직은 어떤 곳에 하게 되나요?

A. 대부분 취직은 병원에서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국립암센터나 보훈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도 취직을 합니다. 보건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저희 학과는 조건에 따라 보건교육사 3급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경력을 쌓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말고도 여러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Q. 실습지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호학과는 어떤 실습을 하나요?

A. 간호학과는 국가고사 합격률, 취업률이 높습니다. 4학년 상, 하반기에 취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로 국가고시를 봅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실습지가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부산 내 실습환경이 우수한 병원들로 선정하시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신입생들, 재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후회 없는 대학생들을 보내고 지혜롭고 멋진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간호학과 파이팅! 사랑합니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 우물을 벗어나 바다를 보게 되다

광고홍보학과 2학년 이연주 학생 2019 D-map 중국 동계 연수 수기



▶ D-map 중국 동계 연수를 간 학생들 모습



▶ 이연주 학생

일 년간 진행한 디랩 강의 끝에 중국 동계 연수를 다녀왔다. D-map이란 학교 적응 및 진로 탐색을 목표로 실시하는 1학년 필수 강의다. 이 수업을 통해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 몇 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연수를 보내주는데, 겨울 연수 대상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소감을 이야기하기기에 앞서, 상해에 다녀온 후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는 상해 옛 거리에서의 경험이다. 중국에 왔으니 한마디는 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당시에는 옛 거리에 가기 전 친구와 "뛰어나오자"라는 문장을 열심히 공부했다. "얼마예요?"라는 뜻의 문장이다. 진짜 중국인처럼 말하겠다고 다짐하며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나 막상 옛 거리 상점에서 저 말을 했을 때, 정작 중요한 가격을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했다. 얼마나 놀랐을까. 거울에 표기된 원화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한국 대학에서 식사하는 것도 기억에 남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이 너무 맛없었기 때문이다. 간간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짜고, 맹탕하고, 느끼했다. 게다가 계속 뜨거운 물만 마셔야 해서 힘들

었다.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외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인들은 따뜻한 차와 물을 즐겨 마신다. 한다. 음식의 느끼함을 날리기 위해서이다. 느끼함이 좀 가셨나 하면, 글씨, 똑똑이 느끼했다. 잠다 잠다 셋째 날 아침에는 조식 뷔페 직원분께 얼음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받은 소중한 얼음을 냉장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는데, 그걸 들키면서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은혜에 피가 도는 그 강렬한 느낌! 절대 못 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감회롭다. 나는 낯가림도 심하고, 생활 패턴도 항상 비슷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디랩 연수를 통해 다른 전공,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

그러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건 다음 아닌 '나'였다. 뾰로로저처럼 놀 생각만 하던 과거의 나. 물론 하루 만에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뀌긴 어렵겠지만, 디랩 연수를 다녀온 경험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발전해 나갈 것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가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안 개구리가 아니라 새롭게 우물을 팔 곳을 탐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내 목표다.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올해 방송영상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YG엔터테인먼트 영상 제작팀 체용에 합격하여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14학년 이도형입니다.

Q. YG엔터테인먼트를 희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처음부터 방송영상전공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1년간의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입대를 한 저는,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 종 생활관에서 우연히 YG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M/V를 계기로 M/V는 멤버별로 즐거거였으며, 각종 사이트에서는 스쳐 지나간 영상의 1분 1초 속 해석이 담긴 글이 작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짧은 1초 속 승진전의 의미를 찾는 재미로 제가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YG 엔터테인먼트를 목표하는 것에 있어서 메이킹 영상 속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저의 목표를 확고히 해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Q. YG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전형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였나요?

A. 영상 계열이자니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막상 서류 합격이 되니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 취직을 하면서 친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면접 때로부터 해서 1분 자기소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재미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 입사한 영상 제작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A.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의 특성에 맞추어 소속 아티스트 관리, 프로모션 영상(M/V 메이킹 영상, 앨범 프로모션 영상 등), 영상 사업 컨텐츠(영상화보집, 시즌 그리팅 등, 온·오프라인 상품), 콘서트 관리, 콘텐츠(스포츠 영상, VCR 영상, 콘서트 실황 영상 등)

# YG엔터테인먼트 영상 제작팀 입사

방송영상전공 졸업생 이도형 학생 인터뷰



▶ 방송영상전공 졸업생 이도형 군

제작했습니다. 디자인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어야 했기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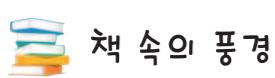
Q. 기획사 입사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A. 단체로 협업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내라고 한다면 연구회나 동아리 활동이 있을 것이고, 학교 외로는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방송영상 전공의 세워온 IDTV 연구회, 부산국제영화제 활동을 하였었고, 경영학과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재미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기획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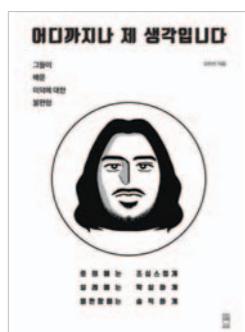
A. 사실 저도 막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입장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학교에 다닌 학생이라 감히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많이 부담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많이 부담되시겠지만 하나님과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책 속의 풍경

##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 책 제목 :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 책 저자 : 오마르
- 출판사 : 페터프레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 진로,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신 있게 말하는 '오마르의 삶'이란 유튜브 채널이 있다. 이 채널에서는 '오마르'라는 유튜버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특유의 예리하고 유머 있는 화법으로 풀어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밝힌다. 오마르, 그의 본명은 양해민으로 1987년 부산광역시 출생인 기수이자 작가이다. 토크 유튜버로 활동, 라디오 출연, 강연, 글쓰기를 하며 오마르 작가는 자신의 직업이 이야기꾼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세상 모든 불편함에 대해 글을 쓴 책이 바로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이다. 그 부제로는 '그들이 배운 미덕에 대한 불편함'으로 그가 생각하는 모든 불편함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깊은 생각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오마르 작가의 다

양한 주제들 중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여 소개해본다.

<부럽다는 동경의 말>, 부럽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건 어찌면 무례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뤄 놓은 성취에 대해 부럽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 말 속에 나쁜 의도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험난한 과정은 감수할 마음도 없이 결과에만 치중한 부러움이 아닐까.

<보여 주려 하는 것과 보이는 것>,

프로와 프로인 척하는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아마추어와 호흡을 맞출 때 기꺼이 아마추어가 되어주고 프로인 척하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과 자신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프로의 덕목인 아마추어를 배려하는 여유와 관용, 그것이 이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짚는다.

<아는 사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와 아는 사이고 누구와 친한 사이인지를 설명하면 그 것만큼 정확한 설명이 없다.

<던져 버린 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들이 상대방에게 한 달 뒤에 도착한다면 우리는 한 자 한 자에 온 마음을 놀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오마르 작가는 말한다. 글 속에 담는 마음에 중량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글에 가벼운 미움밖에 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는 더 빨라지는 세상이 고맙지 않다고 말한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던져 버린 짐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취미로 남겨진 꿈>, 작가는 '꼭 꿈꾸던 무엇인가를 직업으로 삼아야 현명한 걸까. 꿈꾸던 일을 업으로 삼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독자들에게 되풀이 한다.

는다. 직업으로 선택받지 못하고 취미로 남겨진 꿈들이 너무 훌륭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평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거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탈출구가 있다면 편찮은 삶이다. 피땀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없고 무조건 잘 해야 할 필요도 없는 본인만의 것인니 말이다. 꿈을 이루는 가든, 꿈을 취미로 남겨 두든 그건 스스로 선택의 권리이고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연드시 욕을 먹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 사람들은 이론 많은 비난들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직 시원하게 욕을 얻어먹지 못했다는 건 본인의 도전과 목표가 다른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평소 복잡하게 웃는 사람들, 인간관계

에서 오가는 언행들로 인해 힘들었다면 오마르 작가의 책을 가볍게 권유해본다. 책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작가 자신의 생각일 뿐인 글들을 읽으며 스스로 끄끔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읽었다.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인터넷 네트워크 속에서 스스로 한 프레임에 깊어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도 독자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감정에 따라 읽을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생각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책으로 접하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소통인 듯하다.

## 이달의 영화 - 작은아씨들



- 영화 제목 : 작은아씨들
- 영화 감독 : 그레타거윅

영화 '작은 아씨들'은 책 '작은 아씨들'을 토대로 조금 각색하여 만들어진 영화이다. 책 '작은 아씨들' 속 주인공 가족은 자유·박애·평등을 기초로 한 이상적인 가족의 상징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답게, 영화 속에서도 등장인물들은 자유·박애·평등을 기초로 하며 달리 억압된 여려 가지 사회구조와 인식들에 대해 대항한다. 작은 아씨들은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뉴잉글랜드에서 살아가는 서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온화한 첫째 메그, 활발하고 거침없는 둘째 조, 내성적인 셋째 베스, 질투심 많고 깜짝한 넷째 에이미 네 자매의 성장과정을 다투고 있다.

네 자매는 남북전쟁에 참전 중인 아버지의 안전을 기원하며 어머니 수잔과 함께 열심히 살아나간다. 여유롭지 못한 환경이지만 어머니 수잔의 제안과 배움을 통해 더 어려운 주변 이웃을 도우며 살아간다. 그러던 도중, 이웃 로렌스가

의 손자 로리가 네 자매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다.

로리는 장난기 많은 대부호 로렌스 가의 소년이다. 로리는 네 자매들 중 유독 둘째 조와 더욱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네 자매와 로리가 친분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쯤, 첫째 메그는 로리의 가정교사 브룩과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된다. 메그의 결혼식이 치러지고 난 뒤, 둘째 조는 네 자매의 대고모와 함께 유럽에 가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고모는 대뜸 둘째 조가 아닌 넷째 에이미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 이렇게 화가 끓이었던 넷째 에이미는 대고모와 함께 유럽에 가서 수준 높은 미술 공부를 한다. 유럽에 가지 못하게 된 둘째 조는 이후 로리에게 청혼을 받는다. 그러나 조는 로리의 청혼을 거절한다. 본인이, 서로가 각자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유다. 로리는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하자 조는 불안정한 미래가 눈에 보인다면 거절하고 뉴욕을 떠난다.

뉴욕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번 돈으로 생활하며 작가의 꿈을 놓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글을 쓴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어머니 수잔에게 셋째 베스가 몸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간다.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던 셋째 베스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

에이미와 함께 유럽에 갔던 대고모는 여자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말한다. 부자 프레드와 결혼을 거절하지만,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로리를 우연히 유럽에서 만나게 된다. 로리는 에이미에게 본인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에이미는 예전에 로리가 전에 둘째 조에게 청한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거절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프레드

와 결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로리의 청혼을 거절한 에이미는 이후 프레드에게 청혼을 받는다. 기다려왔던 청혼이지만 에이미는 고심 끝에 거절한다. 이미 마음 속에 로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에이미는 로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로리와 함께 본가로 돌아간다. 둘째 조는 셋째 베스 때문에 본가로 온 이후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본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로리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예전에 로리와 함께 해서 즐거웠던 순간들, 로리가 힘이 되었던 순간들, 마지막으로 로리가 청혼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소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낸다.

그러나 이미 로리는 넷째 에이미와 약혼을 한 상황이었다. 조는 로리에 대해 썼던 편지를 누가 못 보게 버린다. 그리고 예전에 해서 글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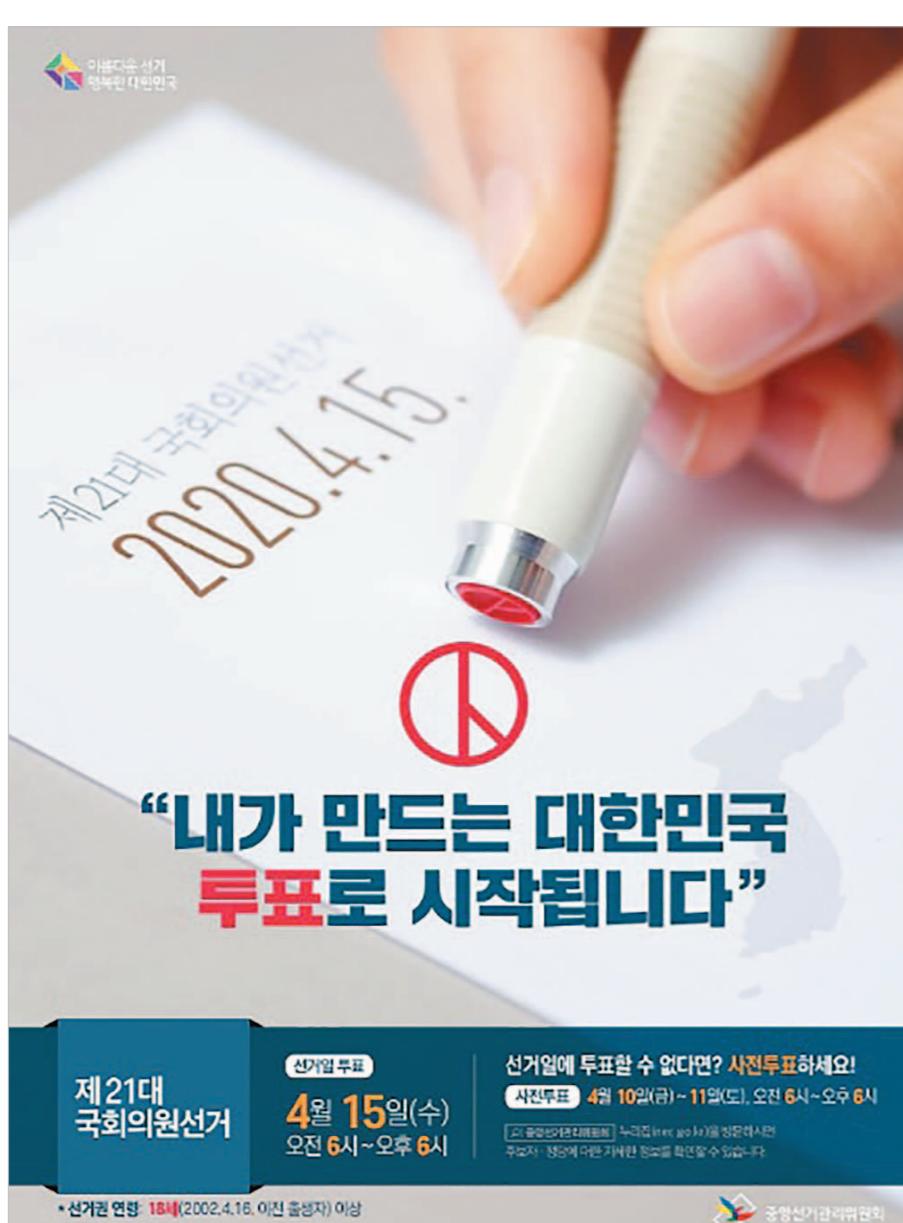
이렇게 영화의 막은 내려간다. 영화 작은 아씨들은 1860년대 시대의 내용이다. 영화 속에서는 1860년대 시대의 여성에 관련한 인식들과 현실을 보여주며, 여성 캐릭터를 새롭게 조망하고 모던하게 재해석하였다.

더불어 가족의 따뜻함, 갈등, 깨달음을, 죄송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적절하게 보여 준다. 또한 어느 영화와는 다른 진행 방식을 보여주었다. 보통 일반적인 영화는 시기순으로 장면을 나열하여 보여주지만, '작은 아씨들'은 영화 속에서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플레이시피'를 이용하였다.

영화 '작은 아씨들'은 제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음악상, 의상상 총 6개 주요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당당히 영광의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제77회 페스티벌 글로벌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 및 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

## 5. 10 유권자 날, 한 표의 가치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형태 및 결과,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한 역대 최고 투표율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였다. 또한 자가 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도착 후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가 격리자 투표를 관리하는 투표사무원은 전신 보호복을 비롯해 안면 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 # 투표 결과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였다. 지역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무소속 5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우 >미래한국당이 19석 (33.8%) >더불어시민당이 17석 (33.3%) >정의당이 5석 (9.6%) >국민의당이 3석 (6.7%) >열린민주당이 3석 (5.42%)을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아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은 물론 1987년 개헌 이후 전체 의석의 31.8%(318석)을 넘어서는 첫 단일 정당이 됐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1석보다 2석 많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 # 투표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고치와 최저치 투표율 모두 발생하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으며, 여태껏 최고 사전투표율은 26.06%였다. 그러나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역사 최고인 26.6%로 기록되었다. 총 4399만 4247명의 선거인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한 것이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로 1992년에 치러진 14대 총선 (71.9%)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58.0%)에 비하면 무려 투표율이 8.2% 상승한 것이다. 이에 반해 재외국민 투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투표율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표권을 가진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이 참여했다.

#### # 5·10 유권자의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뿐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의 주간으로 한다. 유권자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3조)을 지정한다.

투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점점 늘어나는 투표율이 증명한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1996년) 63.9% ▶16대 (2000년) 57.2% ▶17대 (2004년) 60.6% ▶18대 (2008년) 46.1% ▶19대 (2012년) 54.2% ▶20대 (2016년) 58.0% ▶21대 (2020년) 66.2%이다. 앞으로 선거와 투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투표율이 더욱 상승하기를 바란다.

#### # 한 표의 가치, 4660만 원

제21대 국회의원 유권자는 수는 4399만 4247명이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 3000억 원) 기준 21대 국회의원이 일기(4년) 동안 다른 예산 규모는 2049조 2000억 원을 고려하였을 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사한 한 표의 가치는 4660만 원이다. 이는 서울시민 전체에 10만 원씩 지급가능한 돈이다. 선거에는 투표함, 기표대,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개수기, 인증비 등을 비롯하여 약 4102억 원이 사용된다. 선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용되는 것이다.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면 돈은 더욱 많이 사용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리를 상실한 경우,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임기를 시작한 후 사임한 경우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한다. 예로 지난 20대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돈은 122억 원이다. 대한민국 재·내외국민이 행하는 소중한 한 표는 4660만 원 상당의 가치이며 한 표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다 예상된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 축제·공연 소식

### 태안 세계튤립공원

- 기간 : ~2020. 05. 11.
- 장소 : 코리아플라워파크
- 주최 : 태안꽃축제추진위원회



###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 2020

- 기간 : ~2020. 05. 24.
- 장소 : 아침고요수목원
- 주최 : 태안꽃축제추진위원회



### 2564부산연등축제 2020

- 기간 : ~2020. 05. 27.
- 장소 : 송상현광장
-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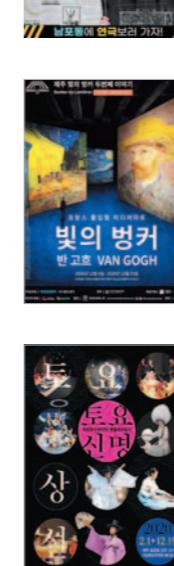
### 해양제주 OCEAN JEJU

- 기간 : ~2020. 07. 05.
-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 주최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 미스터얼간이

- 기간 : ~2020. 08. 30.
- 장소 :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주최 : 씨티아트플러스



### 빛의 벙커 '반고흐' 2020

- 기간 : ~2020. 10. 25.
- 장소 : 빛의 벙커(제주 성산)
- 주최 : 씨티모넷



### 2020 토요신명

- 기간 : ~2020. 12. 19.
-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주최 : 국립부산국악원



# 새내기들을 위한 학교생활 정보

2020년, 새로운 한 해에 어울리는 신입생들이 동서대학교 입구로 다가온다. 첫 대학 생활이란 경험이 주는 두근거림에 즐거울 수 있으나, 곳곳의 낯선 환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가 늦춰져 적응의 시간을 갖기 부족할 수 있어 이런 우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새내기들을 위한 학교생활 정보를 건네주기 위해, 또한 학교의 신설 지역을 소개함과 동시에 동서대학교가 미래형 대학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 # 교내 학교 식당(이하 '학식') 위치



▶경영관(8번 건물) 근처 학교 식당

학교 식당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내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하 '학식'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동서대학교 내에는 총 두 개의 학교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 식당 내 메뉴는 대부분 고정이나 특정 날에만 오픈되는 메뉴가 존재하기도 한다. 메뉴에 대한 정보는 동서대학교 어플인 '동서대학교 스마트 캠퍼스-식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식당은 입구에 식권 결제기가 놓여있다. 자신이 원하는 식당 메뉴를 고른 후 결제를 하면 식권이 배부된다.

먼저 첫 번째, 경영관' 건물 내 학교 식당은 8번 건물인 경영관 입구로부터 왼쪽 샛길에 배치되어 있다. 이때 경영관 입구 맞은편에 계단이 있는데 내려가지 않고 왼쪽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주의점이 존재한다.



▶글로벌 빌리지(23번 건물)내 학교 식당

두 번째, '글로벌 빌리지' 건물 내 학교 식당은 23번 건물인 글로벌 빌리지 내 4층에 배치되어 있다. 글로벌 빌리지는 동서대학교 내 기숙사이자 또 다른 기숙사이 우진 아파트와 가까이 마주 보고 있어 기숙사생들에게 접근성이 도드라진다.

기숙사생이 이용 가능한 조식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석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학생 식당 중 최대 인원을 수용 가능한 곳이다.

## # 교내 카페 위치



▶국제협력관(1번 건물) 2층의 제페니즈 카페

첫 번째, 어문관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국제협력관(1번 건물) 2층에는 제페니즈 카페가 있다. 2층으로 갈 때엔 1층의 CU 편의점 외쪽에 배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페니즈 카페는 일본어에 흥미를 가진 전교생이 재미있게 일본어에 익숙해지고 일본 문화에 친숙해지기 위한 공간 형성 및 행사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운영된다.

제페니즈 카페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NHK 상영, 잡지 및 신문 비치, 일본의 와카 및 근현대시의 번역을 전시하여 감상하는 문학작품 및 번역시화전, 일본인 유학생과 함께 일본어 및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을 회화를 통해 습득하는 'HELP DESK'가 있다.



▶국제관(7번 건물) 1층의 차이니즈 카페

두 번째, 국제관(7번 건물) 1층의 차이니즈 카페가 있다.

차이니즈 카페는 중국인 교수의 헬프데스크 운영, 월별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중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중국어 학습 공간과 살아 있는 중국어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카페의 용도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

차이니즈 카페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중국 CCTV 방영으로 중국어 청취력과 중국의 사회, 문화적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중국 방송 시청, 중국 서적 및 신문 배치, 중국 고사 성어 나들이, 중국인 교수와 함께 하는 중국어 학습공간인 '중국어 Help Desk'가 있다.



▶대강당 엘리베이터 2층의 잉글리시 카페

세 번째, 뉴밀레니엄관과 대강당을 잇는 엘리베이터 2층의 잉글리시 카페가 있다. 잉글리시 카페는 외국인 교원의 헬프데스크와 특별활동을 통해 외국인 교원과 학생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와 실질적인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잉글리시 카페는 중간, 기말고사 기간과 학교 행사 주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된다.

잉글리시 카페에서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영어로 단어 맞추기, 영어로 보드게임, 영어를 사용하면서 축구 및 농구 경기 참여, 'Tastes&Textures', 'Scavenger Hunt', 외국인 교원과 함께하는 영어 학습 공간인 '영어 Help Desk'가 있다.



▶글로벌 빌리지(23번 건물) 외부의 Cafe Meal

네 번째로는 글로벌 빌리지(23번 건물) 외부의 글로벌 빌리지 카페가 있다. 정확히는 UIT 건물 1층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있다. 담당 어학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카페의 역할만 하는 이곳은 기숙사 바로 옆에 위치해 기숙사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식사 대용으로 파는 것들이 다양해 급히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장소이다.

음료와 식사대용 음식을 세트로 저렴하게 팔고 있어 가격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본 카페는 인쇄 및 복사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돈을 지불하면 프린트가 가능하다. 카페 카운터의 오른편에 위치해 있으므로 혹여 프린트가 급히 필요하다면 카페를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민석도서관(21번 건물) 1층의 아미칼 카페

다섯 번째는 민석도서관(21번 건물) 1층에 있는 아미칼 카페이다. 민석도서관 입구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보이는 장소이다. 넓고 폭넓은 공간은 공부를 하면서 커피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공간이다. 카페엔 음료뿐만 아니라 잡지, 책, IT 공간이 있어 공강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다.

게다가 민석도서관의 입구에 위치하여 시험기간 때 긴 내리막길을 내려가지 않아도 손쉽게 마실 것을 구매할 수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높인다. 바로 맞은편에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소 큰 규모의 IT 공간이 있어 과제를 하기에도 용이하다.



▶스튜던트플라자(24번 건물) 1층의 Herry's cafe

일곱 번째로는 GIS 2층 건물 밖에 위치한 Cafe Dream이다. 정확히는 스튜던트 플라자를 지나 뉴밀레니엄관을 향하는 도로에 있다.

키오스크가 배치되어 있어 급히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 테이크아웃 손님들에게 알맞은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 마시고 가기에도 편하다.

후문과 가까이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자주 찾는데, 기숙사와 가까이 있는 특징 덕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다. 방문 시 외국인 유학생들이 스터디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튜던트플라자(24번 건물) 3층의 Plaza Cafe

마지막으로는 스튜던트플라자(24번 건물) 3층에 위치한 Plaza Cafe이다. 스튜던트 플라자 입구로 후문 입구에 위치해 있어 가볍게 방문하기 좋다. 또한 앉아서 쉬다 갈 공간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과제를 하기에 적절하다. 메뉴가 다양할뿐더러 교내 카페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언듯 보면 Plaza Cafe이 다소 좁아 보일 수 있으나, 아늑한 자리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집중해서 과제를 해야 할 때엔 원편에 위치한 4인실 자리를 사용하면 되므로 자리가 협소하여 생기는 실질적 문제는 없다. 경영관, 어문관과 같이 위쪽에 자리잡은 건물들로 향하기 전, 카페에 들러 마실 것을 사려 한다면 Plaza Cafe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 # 교내 마을버스 위치



▶냉정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첫 번째, 냉정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냉정역 5번 출구' 정류장은 5-1, 5-2 버스 노선에 해당한다. 스튜던트 플라자 근처의 건물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냉정역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튜던트 플라자 근처의 건물은 뉴밀레니엄관, UIT, 산학협력관이 있다. 민석도서관이나 국제관, 어문관, 경영관, 국제협력관으로 가야 한다면 냉정역 1번 출구에 있는 '냉정역'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냉정역 버스 정류장을 거치는 버스는 5, 5-1, 5-2, 2번이 있다.

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착 예상시간 15분 이전에는 반드시 서있는 것이 좋다. 어느 정류장이라도 사람이 블리므로 버스를 기다리다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을 면하고자 한다면 일찍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



▶주례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두 번째에 소개할 정류장은 냉정역이 아닌 주례역에 있다. 주례역 1번 출구에 배치된 '주례 렉카아파트(주례역)'에는 3, 3-1, 2번 버스가 운행된다. 3, 3-1 버스는 글로벌 빌리지로부터 왼쪽, 2번 버스는 글로벌 빌리지로부터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 방향이 달름을 인지해야 한다. 본 정류장은 글로벌 빌리지를 경유하기에 근처 건물로 향할 일이 있다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버스 탑승 시에는 앞에 탈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안쪽 맨 뒷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다. 앞에 서 있다면 뒤에 사람들이 더 타지 못해 뒤쪽은 빈 체로 출발하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 # 뉴밀레니엄관의 새로운 시설들



▶뉴밀레니엄관 3층에 위치한 미래형 강의실



▶뉴밀레니엄관 4층에 위치한 회의 공간

2020년, 뉴밀레니엄관의 3층에 새로 만들어진 미래형 강의실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선사하기 위해 기존의 강의실을 개조한 것이다. 자세한 위치는 뉴밀레니엄관 3층 브레이인스토밍 공간 원편이다. 신설 기기를 포함해 새롭게 꾸민 본 강의실은 한 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학생들의 회의 공간이 즐을 것을 보완하기 위해 뉴밀레니엄관 4층에 새로운 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본래 모습과 다르게 활기勃勃하여 과제나 공모전 등을 위한 회의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위치는 뉴밀레니엄관 4층 교무처를 기준으로 원편에 있다.

## # 마치며

처음 딴 대학이란 세상은 생각보다 넓어 헤매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는 미숙한 것이 아닌 모든 선배들이 거친 일련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아갔으면 한다. 학교를 알아가는 것 또한 주역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 제시한 곳만이 아닌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서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기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다 보면 분명 따르는 이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동서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늦게나마 전한다.

자료 출처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신현정 수습기자  
hyujk369@gmail.com



## 변수라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김민경 (방송영상·4)

이번 학기는 내가 학교에 다니는 마지막 학기가 될 것이다. 아직 4학년이지만 저학년 때부터 학점을 열심히 채웠기 때문에 4학년 2학기에는 더 체율 학점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출입하기 전에 취업 준비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1학기가 끝난 후 휴학을 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1학기가 개강한다면 다른 학기를보다 더욱 성실하게 다니고 싶었다. 게다가 나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학부 사무실에 국가 근로 장학 생으로 일하면서 공간 등용권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나보다 학교를 더 열심히 다닌 학생은 없을 거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번 4학년 1학기는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실습수업이 많아 근로 장학을 포기했다. 즉, 1학년 1학기 이후로 만나볼 수 없었던 나의 공강을 되찾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학기를 더욱 기대했다. 나 마지막 학기, 내 마지막 학기 공강을 더 알차게 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었던 눈이 녹고 따뜻한 햇볕이 온 세상을 비추어도 모든 사람은 질문까지 꼭꼭 닫은 채 침울한 생활만 할뿐더러 외출 시에는 그 누구와의 접촉도 피하며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어렸을 적 10년, 20년 후 미래 모습 그리기를 했을 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거나 바닷속에서

사는 사람들 따위를 상상했었는데 2020년에 그것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불리는 최첨단 시대에 이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교 역시 개강을 연기했다. 이번 20학번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더욱 실망감, 혀탈감이 크리라 생각한다. 내 마지막 학기를 이렇게 맞이하다니… 2월에 들어설 때만 해도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막상 학교에 못 가게 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상했다.

이렇게 오래 집에만 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물론 갑갑하지 않았다면 코가 길어질 정도의 거짓말이겠지만 나에게 있어 의미 없이 하얗게 보내고 싶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인한 개강과 종강 연기가 끊였다. 하지만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어떤 노인의 소식, 인력이 부족한 곳에 밭 벗고 나서며 도와주고 있다는 의료인들의 소식 등이 들리면 그냥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국가를 위해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휴학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영어 공부를 지금 시작했다. 매일 외신 기사 한 편을 필사하고 번역해보고 모르는 단어는 체크해 외우고 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한다면 지금보다는 자유시간이 줄어들어 어렵겠지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할 것이다. 내 의지가 버텨 준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CBTD 철을 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제일 마지막 계획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계속 마음 먹었던 것이지만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는 정말 열심히 다니자고 스스로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하는 바람이다.

5월 초부터는 학교에 나가 일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쯤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져 버렸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나라이다.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가장 빠르게 잡잡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조금 답답하고 숨 막히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를다면 모두 건강하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누군가는 지금이 2020년 3월이 아니라 2019년 15월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공감되었지만 이미 훌려간 시간을 뒷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직은 가시밭길을 걷는 듯 불편함이 가시지 않지만, 이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다면 모두의 앞날은 꽃길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모두 지치지 않기를.

## 죽비소리

## 또 다른 시작?!

박혜원 (방송영상·1)

행동에 대해 책임져줄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저 20살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21살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무서워 지레 겁먹기 일쑤였다.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나의 모든 행동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어떤 결정을 하면 내 의사로 진행되어야 했다.

설렘과 두려움의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대학교 입학했다. 확실히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비슷한 점이라곤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표와 급식 표를 짜주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 시간표는 스스로가 짜야 하며 급식도 누가 떠먹여 주듯 정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확실히 혼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병아리에서 벗어나 혼자 길을 찾듯 혼자 해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 힘에 나의 하루를 스스로가 다 정하고, 습관을 결정하는 것이 더였다. 내가 짠 시간표와 각종 일정을 기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초반에는 적응하지 못해 혈액의 반복이었다. 나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처음이나 보니 지치고, 힘들기도 했다. 힘든 점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작은 실수와 미뤄뒀던 것들이 큰 과도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도 했다. 그 결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판단을 타인에게 넘기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 결론이 잘못된 경우엔 내 힘에 아닌 남 힘을 하기도 하며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했다.

2019년의 나는 마냥 게을렀고, 놀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실행해 옮기지 않는 단지 평범한 20살이었다.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이 된 후 내

집에서 내가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려고 한다. 아직은 21살이라는 성인 2년 차라는 것이 믿기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지만 후회하는 일 없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남은 3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내 대학 생활의 목표다.

더 나아가 나의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는 방송인의 경험치를 들릴 수 있는 '정보영' 스�피치 대회도 참여해보고, 언론 고시 관련 책들도 읽어보고, 직접 실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언론 고시 문제집들도 구매해 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공부도, 학점관리도 '스스로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해야지.' 하면서 올해 계획들을 세워본다.

이제는 마냥 어리고, 철없었던 나 자신에서 점차 발전하는 내가 되길 바라며 좀 더 좋은 목표를 가지고 꿈에 다가가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학생이라는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여 내가 걷는 길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입학하는 새내기,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선배들,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2020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을 앞둔 모든 사람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성실히 나아갔으면 한다.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이 걷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신뢰가 생길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 이달의 명언

목적 있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되는 뿐이며,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한다.  
—에오나르도 다빈치

우리의 가장은 악점은  
포기한다는 것에 있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빅 케이츠

## 사설

## 원격강의는 발전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초중고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들은 예측 못 한 상황에 우왕좌왕하였다. 뺏꽃이 출날리는 캠퍼스를 걷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집에 쟁쟁 위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초반 대학별 사정에 따라 개강 날짜를 미뤘으나 이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의해 개강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 대학들은 3월 9일부터 개강 날짜를 미루는 대신 사이버 강의, 즉 '비대면 원격강의'를 통한 수업을 시작했다.

사이버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심했다. A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는 한 신입생이 '교수님이 PPT와 과제만 올리고 사라졌다. 새내기라 아무것도 모르겠다.'며며 온라인 강의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것은 비단 새내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대면 강의를 겪었던 재학생들 또한 사이버 강의에 대하여 수업 질 저하, 과한 과제 대체, 실습의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5%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찬성하며 질 저하된 사이버 강의가 길어질 경우, 대학 측에선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침울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원격강의를 준비해야 했던 교수들의 노고도 크다. 아주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무작정 시행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 기준의 대면 강의를 토대로 서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 강의를 도입하였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원격강의의 외에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그렇다 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학 개강 연기 권고와 함께 원격강의 강화 확대를 허용하였으며 방식은 '대학의 부담'이라 칭하는 비판에 대학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대학은 긴급히

서버를 구축하였으나 질 좋은 강의를 위한 준비는 주어진 시간, 시설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과제 중심의 강의 진행, 유튜브(YouTube) 활용의 강의 콘텐츠 제작, 화상 강의(ZOOM)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 강의를 이어가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달라마는 대학과 학생들의 마찰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격강의가 대면 강의의 대체로서 마땅 문제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대학에서 Office 365의 'Teams'라는 대용량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기준의 서버가 불안정했던 학습관리시스템(MLS)과 차별화된 강의 동영상 제공하여 이를 풀었다. Office 365의 정점은 마이크로소프트(MS) 정품 Office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음을 물론 클라우드 공유를 통해 대용량 강의 자료를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학생들은 교수에게 실시간으로 질의는 물론 과제 제출, 피드백 및 실시간 토론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좋은 시스템

이 되어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겼다. 이미 국외에서는 스텐퍼드대, 뉴욕 주립대 등이 MS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캠퍼스를 구축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비대면 원격강의가 대학교육 주도 역할에 올랐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 방식 활용 방도를 더욱 높여야만 한다. 한국 전통의 대면식 강의에만 머물러 악속해져 있던 교수들은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으로 이수해야 한다. Office 365, 구글의 G-Suite for Education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버를 구축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는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 외에도 많은 활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질문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여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즉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면, 교수는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답을 해줄 수 있다. 또한, 강의 시

간 내에 설명하지 못하였던 내용은 따로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생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교육 수준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태는 아무도 예상

## 네컷만화

### 새학기 등교



## 목회칼럼

## 내일을 향하여

기고 초 도시화, 초연결 사회로 기형적 발전을 하여 온 것이라고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세대가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시련이기를 포기하는 극악 법 죄를 성행하고, 총체적으로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어 스스로 벌어 드린 재앙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과거에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선택으로 벌어드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인간의 본성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다치면 자동으로 '내가 뭘 잘못 했지?'라고 짚거나 라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고 한다. 신앙 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문제에 답을 발견할 수 있다. 날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가? 맑하자면 고통의 원인이 과거인가? 현재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

##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새로운 4컷 만화와 만평을 그리게 된 디지털 콘텐츠 학부 3D 애니메이션 트랙 정희진입니다. 4컷 만화는 우리 학교 학생인 디지털 콘텐츠 학부 진학, 간호학과 및 학부 진학, 경찰행정학과 및 학부 진학, 그리고 4학년 학부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간에는 코로나19의 원인을 인간이 이기적 탐욕으로 자연 질서를 어

■ 동서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인터뷰 –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김유정 학생

## 캠퍼스에서 활보하길 기다리며

### 온라인 강의에 대한 신입생의 솔직한 인터뷰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 어색하면서도 설립이 가득한 새로운 친구와 선배의 만남, 고등학교 선생님과 사뭇 다른 교수님의 전공 수업. 기대감을 험껏 부풀고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들의 바람과 달리 코로나 19시대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 대학교가 대면 강의 대신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재학 중인 많은 학생은 물론이거나,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익숙하지 않은 대면 강의를 들게 된 신입생들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려 걱정과 근심을 헤아리기 위해 누구보다 오래 기다려왔을 1학년 신입생들을 대표하여 김유정 학생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속 학과와 이를 등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애니메이션학과 1학년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Q.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생으로서 캠퍼스에 다양한 활동을 아직 누리지 못하였는데, 어떤가요?

A. 대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즐기고, 추억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1학년 이기에, 1학년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둘이 켜 보았을 때 자주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1학년으로 입학하여 입학식도 못 간 것도 아쉽고 또한 체육대회,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Q. 개강 이후로 동서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A. 아니요, 아직 입학한 이래로 캠퍼스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한시라도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캠퍼스에 허투루 방문해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동서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

Q.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태에 온라인 수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은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도 잡히지 않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여러 번 강의 교안을 뒤틀거렸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예상보다 좋은 점도 발견되는 것 같고, 반면에 단점도 발견되는 각각의 장단점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국가가 재난에 위기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보면서 시대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A.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수업을 듣는 중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없는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이랑, 현장 실태가 중요시되는 과목들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것에 한계점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Q.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나 고쳐졌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A.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출석체크와 과제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제출하였는지, 교수님이 확인하였는지, 나 혼자 다른 주제로 빠진 건 아닌지 매번 마음 풀이며 다시 한번 품품하게 검토합니다. 불편한 점은 대면 강의였다면 즉석에서 친구들과 서로 모르는 것을 물



▶ 영상애니메이션학과 20학번 김유정 학생



▶ 고등학교 시절 실시하였던 실습

고답하거나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시스템상의 오류로 제출 기한이 바뀌지 않았는지 등 외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불편합니다.

신경 쏟다고 하지만, 이따금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제 실수로 인해 과제는 하였더라도 결석, 자각 제출의 평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끔 서버가 불안정해서 접속할 수 없게 되면 마감 기한이 임박해 질수록 제 마음도 조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정이 되지 않아 곤란하고 난처하였습니다.

Q.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 이런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A. 교수님의 녹화 강의를 볼때마다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부분입니다. 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교수님의 강의 중 필요하느라 말씀을 놓쳐 중요한 부분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이러한 경우에 다시 돌려보면

되니, 복습에도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통화하는 시간의 이동 거리가 단축되어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혹은 기대되는 수업이 있다면?

A. 고등학교를 떠나 대학교에 왔으나 대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색다른 강의실, 교수님 등등 새로운 방식의 모든 수업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Q.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나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의 생각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지난 대면 강의를 들었던 제 모습을 다시 추억하며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여원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요셉



▶ 요셉과 그의 형제들

▷ 사진 출처 – 위키백과

### 고난은 악이 아니라 선이다

구약성서 《창세기》(37장~)에 나오는 아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리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다. 이집트에 팔려가 종리대신이 되었으며 이집트 주변의 흥년과 기근을 예지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세웠다. 이상적 역할을 갖춘 명예상이다.

창세기 30장에는 요셉(Joseph)이라는 이름의 출처가 나온다. 아이를 뜻 넣던 라헬이 요셉을 염자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님을 더 주시기 바란다.' 하면서 요셉이

을 지명했다고 믿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부모와 형제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은 이 꿈이 자기 애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 꿈이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 받는 아들로서 부당하게 누리던 특권을 더욱 드러내는 거로 생각했다. 우리가 옳다고 확인한다. 해도 합당한 견해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 좋은 지도자는 시기보다는 협력을 끌어내려 애쓴다. 요셉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형제들과 심한 불화를 겪었다.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의 형제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던 대상(隊商)에게 요셉을 팔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그 장사치들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이자 "진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버렸다. (창 37: 2-36)

파리오의 경호원인 보디발 밑에서 요셉이 맡은 일은 신임을 받은 노예로서 책임이었다. 이후 요셉의 전반적인 능력을 알아보니 보디발은 그를 승진시키 개인 비서로 삼는 한편,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그러다 얼마 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性)적인 관심을 보였다.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단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거절했다. 그는 보디발이 그에게 보여 준 쭉쭉은 신뢰를 상기시키

면서 그녀가 꾀하는 관계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로 "큰 악"이고 "하나님께 죄"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다. (창 1: 20)

감옥에서 요셉은 감금되어 있던 바로의 신하, 두 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술 맡은 관문장과 떡 굽는 관원 당시였다. 여려 애굽 문서에 의하면, 술 맡은 관문장은 술의 품질을 시험하고 떡을 들었는지 검사할 뿐 아니라 정치권력자와 가까이 지내기도 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이 왕실 관리들을 위해 꿈을 풀어주었다. 이 중에서 요셉의 해몽대로 포도주 담당 시종은 사면복권 되지만 그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창 39: 20-23)

그런데 2년 후에 파리오가 꿈속에서 마른 곡식과 소들이 잘 여분 곡식과 살찐 소들을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였으나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이를 풀지 못하자,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해내어 소개했다. 시종장의 소개로 파리오에게 앞으로 불린 요셉은 앞으로 7년간 풍년 다음 7년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꿈 풀이를 했고, 그 지혜에 감동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 요셉은 풍년 동안 모아둔 곡식으로 가뭄에서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닌 주위의 많은 사람을 구하였다. (창 41: 1-45)

이 과정에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요셉이 어렸을 적 꾸었던 꿈 그대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굽신거리게 된다. 한편 가나안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 내려온 아버지와 가족들을 불러, 가족을 키우면서 살 곳으로 거센 평을 정해 주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 형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뒤였다. (창 41: 46-50 : 21)

그는 110세를 일기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그의 유언을 헤아 그 뼈를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져와 안장했다. 그가 보여 준 희생과 순종, 순결과 인내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한편,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혹은 두 지파를 함께 부를 때, 북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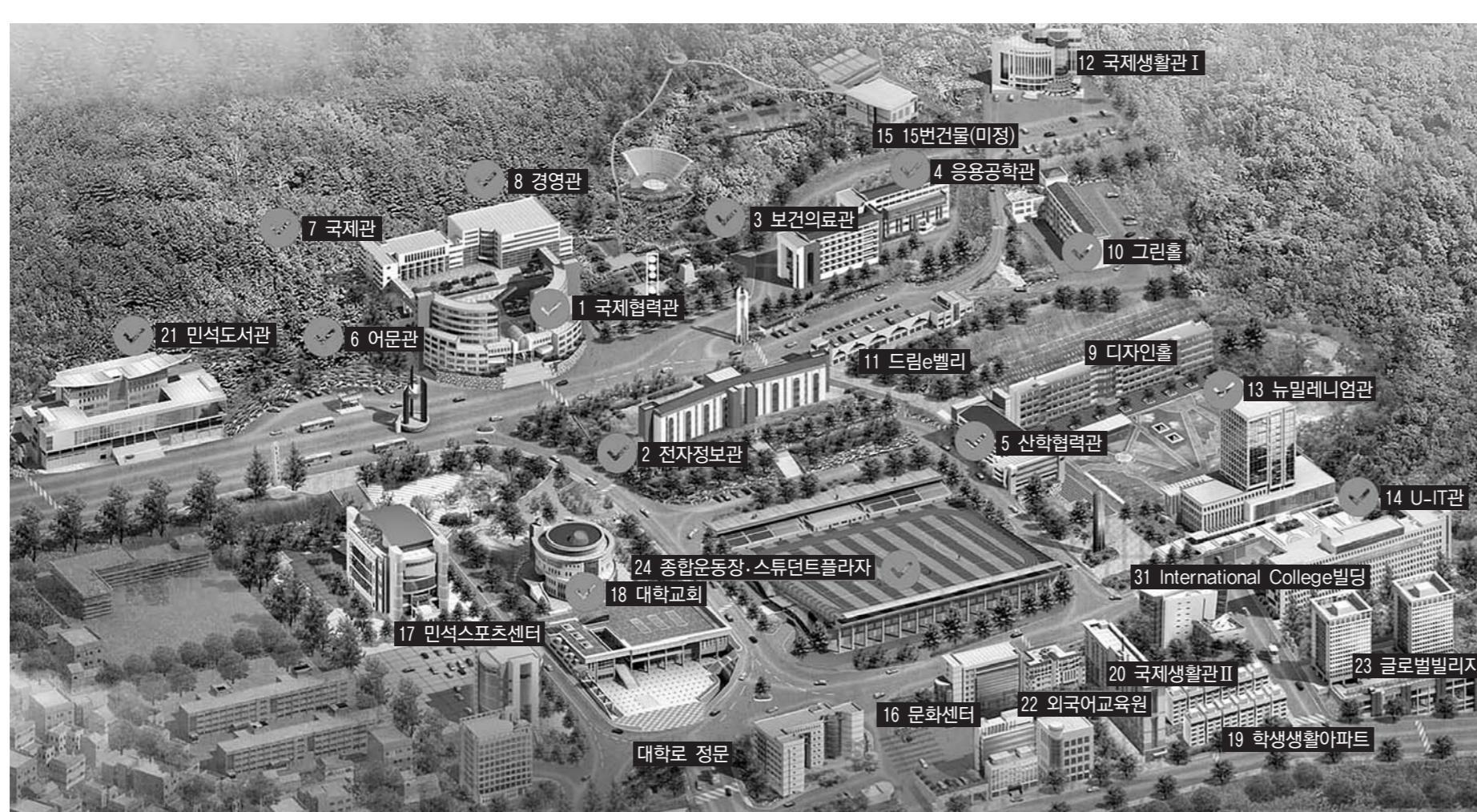
요셉의 역사적 기록은 구약성서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요셉 이야기와 내용이 비슷한 '두 형제 이야기' (The Tale of the Two Brothers) 설화와 기원전 17~19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기근을 피해 이주한 이민들의 지도자 이야기가 결합되어 구약성서에 요셉 이야기로 기록된다. 그 지혜에 감동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 요셉은 풍년 동안 모아둔 곡식으로 가뭄에서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닌 주위의 많은 사람을 구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가 아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고난 앞에서 타인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여 이겨내지 않고, 용서와 자비를 통해 견뎌내야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발자취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

자는 견해를 통해 요셉이 실존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요셉은 가족의 배신, 신의를 받는 순간, 외연의 순간과 구원의 대행을 겪으며 자신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도구' 이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의 내렸다.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알았으며 가끔은 사람이 가장 악랄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만약 요셉이 악한 형들의 행태와 현재 자신이 처한 비참한 환경만을 생각했다면 애굽에서 노예로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가 아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고난 앞에서 타인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여 이겨내지 않고, 용서와 자비를 통해 견뎌내야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발자취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국민일보  
천주교 마산교구-성경의 세계  
신현정 수습기자  
hyujk36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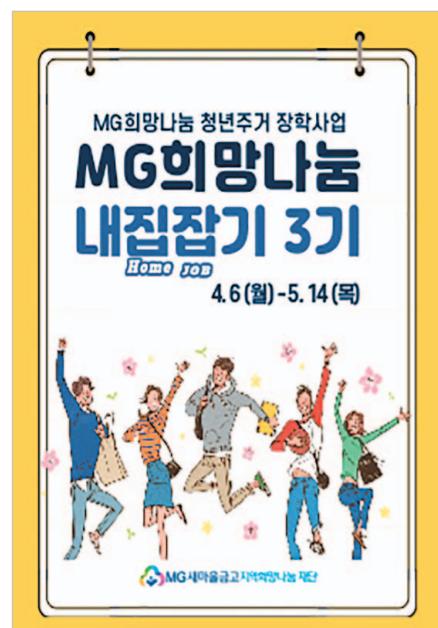


## 신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N1	국제협력관	N10	그린홀
N2	전자정보관	N13	뉴밀레니엄관
N3	보건의료관	N14	U-IT관
N4	응용공학관	N18	대학교회
N6	어문관	N21	민석도서관, 열람실
N7	국제관	N24	스튜던트플라자
N8	경영관		

\* 대학신문은 각 위치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20 MG희망나눔 청년주거  
장학사업 내집잡기 3기
- 접수기간 : ~2020. 05. 14. (목)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 2020 산울림 고전극장 서포터즈
- 접수기간 : ~2020. 05. 15. (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2020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5. 15. (금)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디자인

-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5. 20. (수)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광고/마케팅

-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 접수기간 : ~2020. 05. 28. (목)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광고/마케팅



- 제4회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5. 31. (일)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조아라 제1회 현재작품 공모전  
INSTALL
- 접수기간 : ~2020. 06. 04. (목)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 2020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05. (금)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2020년 5기 연안서포터스
- 접수기간 : ~2020. 06. 07. (일)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대외활동/서포터즈

- 2020 함께 만드는  
여성 친화 달서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08. (월)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잠깐! 상식퀴즈

### 현재 상황

5월초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어느새 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신종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유의사항과 함께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모두 힘내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 정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로 감염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특히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시에도 기침이 나온다면 꼭 팔이나 옷을 이용하여 입을 막은 상태에서 기침하도록 해야 한다. 오염된 물건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과 코 그리고 입을 만지는 것 또한 감염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무언가를 만지게 된다면 최대한 팔꿈치나 옷으로 가린 다음 만져야 하며 만약 손을 사용하였다면 손을 씻기 전까지 얼굴을 만지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Q&A

Q.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곳에  
가도 괜찮을까?

Hint.

확진자가 거친 곳은 보건소에서  
철저한 소독을 진행한다.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2859-0974로 연락주세요.

\* 5월 22일까지 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5월 25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  
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락처 : \_\_\_\_\_